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철거·재시공 절차 '윤곽'

완공 못한 16층 이상 시설물...신축공사 '연장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심사·승인 거쳐 철거 가능 잔해 해체 마무리·공사 중지 명령 해제 '급선무'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1·2단지지와 관련해 전면 철거·재시공 절차의 윤곽이 잡혔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1·2단지 8개 동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6층 이상 시설물로서 간주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철거 절차가 진행된다.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전면 철거·재시공을 둘러싼 행정 행위의 성격에 대해 문의,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화정아이파크 내 짓다 만 8개 동은 완공되지 않은 구조물인 만큼,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전면 철거·재시공 공정 역시 신축 공사의 연장선에서 관련 승인·허가 행위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재시공 공정에서 활용할 공법·안전관리대책 등을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사업승인권자인 서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구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법,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놓고 계획서 작성 중이다. 실제 제출까지는 두 달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계획서 승인을 받는다 해도, 현장에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공사 중지 명령 해제는 광주고용노동청 현장 심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긴급한 붕괴 잔해물 해체 공정에 한해서만 공사 중지 명령도 해제된 상태다.

붕괴 사고가 난 201동 남측 외벽 등지에 방치된 사고 잔해물을 철거·반출하는 공정도 마무리돼 본격적인 전면 철거 공정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잔해물 해체 공정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올 하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8개 동을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지 구체적인 공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구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도심 열 식히는 클린로드시스템

낮 최고기온이 28.9도를 기록한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섬현상을 막기 위해 클린로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시공은 시공사가 받은 지난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 별개의 허가 행위가 필요

치 않다.

서구 관계자는 "위험 붕괴 잔해물 해체 공정부터 끝나야 전면 철거·재시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전

면 철거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과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절차 등이 올 하반기 안으로 비슷한 시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산업개발 측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양궁 메카' 광주, 국제스포츠 도시 저력 발휘

양궁월드컵, 옛새 동안의 여정 성공리 마무리
 WA사무총장 "단 1% 허점도 없는 완벽한 대회"

광주시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 양궁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러냈다. '양궁 메카' 광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청신호를 쏘았다는 평가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막한 2022 양궁월드컵이 38개국 391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리치브와 컴파운드 10개 종목에 걸쳐 옛새 동안의 열정을 뒤로 하고 22일 무사히 폐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25세계양궁대회와 2022양궁월드컵을 동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자 곧바로 올해 양궁월드컵을 2025 세계선수권 프레데리트로 준비해 완벽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국내에서 처음 열린 국제스포츠대회로, 야의 선별검사소 야간 운영과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 체계적인 자기검진시스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대회 운영도 빛났다. 시는 2015 하계U대회와 2019 세계수영대회 등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궁

월드컵을 유치한 데 이어 준비기간 164일 만에 무탈하게 대회를 마쳤다. 세계양궁연맹과 참가선수 모두가 완벽한 대회 운영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다.

지난 1월 양궁월드컵만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한양궁협회, 시양궁협회, 중앙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7개 분야 66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과 현장 리허설을 거치면서 대회 준비 실행력을 높인 것이 주요했다.

지난 3월 15일 국가 중요행사 지정돼 광주경찰청 등 민·관·군·경 16개 기관이 협력해 경기장 주변 순찰 강화에 힘을 실어준 것도 큰 효과를 봤다.

특히, 광주 양궁월드컵에서 최초로 시행한 'K-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서비스는 해외 참가 선수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전에 없는 혁신적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체육회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각종 스포츠 전문장비를 사용, 연구원들이 직접 선수 밀착서비스를 제공했고, 28개국 197명이 이용했다.

탐달면 세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은 "예산부터 결승까지 단 1%의 허

점도 없는 완벽한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경기장, 숙소에서 선수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112명의 시민 자원봉사는 이번 대회에서도 시민의 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숙소 안내데스크, 수송·질서 지원, 경기운영 지원, 관람객 안내 등 현장에서 중추무진 활약하며 순조롭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시와 양궁협회는 체코와 모로코 등 1인 참가국 선수(5명)와 우정의 오찬 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90개국 1100명 이상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한다. 규모만 놓고 보면 양궁월드컵의 3배 수준이다.

지자체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회 기간 중 방문객은 1만3500명, 생산유발 효과는 광주 57억, 전국 92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광주 28억, 전국 39억원으로 추정됐다. **김도기 기자**

광주·전남 30도 안팎 무더위 성큼 '올해 기온 중 최고'

담양·순천 황전 31.9도, 곡성 옥과 31.4도, 광주 30.3도

광주·전남 곳곳에서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담양·순천 황전 31.9도, 곡성 옥과 31.4도, 강진 31도, 장흥 30.6도, 완도 30.4도, 광주 30.3도 등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 공식 관측 지점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했

다. 담양과 순천 황전, 곡성 옥과도 마찬가지다.

일부 섬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1990~2020년 평균) 낮 최고기온인 23~27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햇볕이 내리 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하루 최고

광주 공유촉진사업 본격화	2면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3면
사상 최대 적자낸 한전	4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법성포천년 단인빛에 취하다

법성포 단인축제

일시 : 2022. 6. 2.(목) ~ 6. 5.(일) 4일간

장소 :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일원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154-13)

NAVER 법성포단오제

◆ 국가무형문화재(공개행사) ◆

- ▶ 난장ტი기
- ▶ 전곡국악경연대회
- ▶ 용왕제·선유놀이
- ▶ 단오장사씨름대회

◆ 주요행사 ◆

- ▶ 6.2. : KBS 국악한마당
- ▶ 6.3. : 기념식 (한눈에 즐기는 법성포단오제)
- ▶ 6.4. : KBS 전국노래자랑
- ▶ 6.5. : KH그룹배 전국단오가요제

▶ 주최·주관 :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 제진위원회 ☎ 061-356-4331

▶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남문화재단, 영광군, 영광군의회, KH그룹, 안목수협(법성면), 안목면자치분부, 영광군수회, KH 필름스, KH Electron, KH 건설(주), KH IHQ, JangwonTech, KCH 강원개발, (주)영광방, KANGILM (주)영광, (주)서노스